

*서면질문

지난 10월 16일에 최보선 서울시 교육위원과 제가 공동으로 마포지역 어린이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마포구청 관계자를 비롯해 학부모, 방과후 돌봄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넘게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시기를 포함해서 가장 힘든 시기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로 꼽고 있습니다. 이때가 일가정의 양립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맞벌이가구들은 방과후 자녀들의 시간관리와 안전 등의 돌봄공백에 대한 고민은 거의 공포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후 직면하는 이 돌봄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교육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같은 현실은 2011년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중학교 71%보다 많은 84.6%에 이른다는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발제를 하신 이태수 교수에 따르면 초등학생 320만명 가운데 방과후 방치된 나홀로 아동의 숫자는 최소 50만명에서 최대 97만명(여성가족부 2011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성인의 보호 없이 홀로 아동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전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 마포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마포구 초등학생 1만8,105명 가운데 학교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공적영역의 돌봄기관 정원은 1,039명으로 전체 학생의 5.7%만이 수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운홀 미팅 참가자들은 방과후 돌봄기관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구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민간대표자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과 후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지원과 조정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방과후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구청이 교육지원청과 함께 1차(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아카데미), 2차(드림스타트, 위스타트, cys-net 등), 3차(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수련관 등) 방과후 안정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과후 돌봄기관 지도만들기 사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면질문 답변자료

(가정복지과)

질문의원(위원회)	오진아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질문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협의체 구성 및 '방과후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방과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정○ 교육지원청과 함께 방과후 안전망 실태조사 및 방과후 돌봄기관 지도만들기 사업 추진

▣ 답변 내용

○ 현재 교과부, 복지부, 여가부에서 각각 추진 중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부처간 연계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가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부처간 협의체 구성, 공동 수요조사, 중복 누락 방지를 위한 부처간 정보 공유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공동 연구용역 등의 추진을 합의 하여 정부차원에서 방과후 돌봄 정책에 대한 상호 연계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 따라서 방과후 돌봄 지원협의체 구성, 방과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정 등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부처의 정책 변화에 맞춰 교육지원청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음.